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5,6-10ㄱ

6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7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8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9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 하자. 10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12-14.19-20

형제 여러분, 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13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9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1-14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1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하고 말하여라.'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8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공지사항

■ 청년성서모임 봉사자 및 그룹원 모집 (26년 가을)

대상: 주님의 말씀에 관심있는 모든 청년 신자

과정: 창세기 > 탈출기 > 마르코 > 요한

(첫 신청자는 창세기 과정부터 시작해요)

문의 및 신청: 정원준 막시밀리안 (630-276-8864)



■ 성전에 앉아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성전에서는 소리를 낮춰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례 및 고해, 병자성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우리들의 정성 (10/04/2026)

■미사 봉헌금: \$512.00 | ■교무금: 김세동 (10), 박재훈 (9), 신창식 (10), 엄영준 (8-9), 정소훈 (10), 조윤경 (10-12), 최민해 (9-10), 최아영 (7-10), 최정자 (10), 서병욱 (IU)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 (3.3%) 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에, 월별로는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October 11, 2026 연중 제 28 주일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마태 22,4).

Come to the Feast (Mt 22,4).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전례 봉사자

	연중 제28주일(10/11)	연중 제29주일(10/18)	연중 제30주일(10/25)
해설	정명호 미카엘	황현성 요셉	김성숙 M.막달레나
독서	박재훈 오혜리	김춘환 김경선	공성현 공승윤
복사	박정인 헬레나 박서인 로즈마리	박한준 라파엘 남고은 소피아	류지수 엘리사벳 류지안 레오
반주	한혜경 아녜스	공승윤 수산나	김 데레사
제대	안소희 클로틸다	공승윤 수산나	곽동화 소화데레사
예물	엄유상 정휘인	류지안 ?	엄유상 리노아

*독서 순서 관리: 김은경(파울리나) & 장재원(베드로)